

시론

보정과 조작: 실재와 가상의 경계에서



박 남 기
광주교대 명예교수

과거에는 경이로운 사진을 보면 감동이 먼저 밀려왔다. 이제는 사진을 마주할 때 감동보다 "이것이 진짜일까"라는 의문이 앞서는 탈진실(post-truth)의 시대가 됐다. 물론 UF O 사진을 비롯해 사진 조작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이제는 사진 편집용 다양한 AI가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작은 노력과 비용으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조작 보편화 시대에 진입했을 뿐이다.

카메라는 광학적 한계 때문에 모양, 색깔, 밝기 등이 사람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른 경우가 생긴다. 이때 명암이나 색조 등을 조절해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유사하게 편집하는 것을 보정이라 한다. 이미지의 맥락을 바꾸고 수용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순간 그것은 조작이 된다. 물론 그 경계를 선명할 수 치로 나누기는 어렵다. 핵심은 기술의 강도가 아니라 진실을 전달하려는 의지와 타인을 속이려는 의도에 있다.

신인 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원본이라고 하더라도 원본과 조작본의 구분이 생각만큼 단순하지는 않다. 우리는 매일 아침 얼굴을

씻고 면도하고 때로는 화장하며 스스로를 보정한다. 이 인위적 과정이 디지털 세계로 옮겨가면 경계는 더 모호해진다. 연예인의 사진, 선거철 명함과 플래카드 속 얼굴, SNS의 필터는 대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보여주고 싶은 방향으로 정리된 결과물이다. 사람들은 다듬어진 이미지를 진짜 나로 믿고 싶어 하고,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또다시 보정된 자아를 전시하느라 에너지를 소진한다. 그러다 보면 SNS 속 보정된 삶이 실제 삶보다 더 리얼하게 느껴지는 역전이 일어난다.

이러한 세태 속에서 '실재의 무게'를 지켜낸 이들의 일화는 목작한 울림을 준다. 청와대에 걸리는 공식 초상화를 그린 이종구 화백의 증언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미완성 상태의 초상화를 보더니 머리칼이 너무 단정하고 피부가 지나치게 깨끗하게 표현됐다고 오해하며 수정을 요청했다고 한다. 프랑스 대배우 잔느 모로는 70세 생일에 사진 보정을 제안받자 "나의 주름을 지우지 마라. 이 주름을 만드는 데 70년이나 걸렸다"라고 답하며 거절했다는 일화는 널리 회자되고 있다.

사진을 믿기 어려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소비자로써의 비판적 문해력이다. 예술적 유희로서의 조작은 창작자의 노고를 즐기면 된다. 그러나 사실 여부가 중요한 영역에서는 사진을 '증거'가 아니라 '주장'으로 취급해야 한다. 누가, 어떤 맥락에서, 무엇을 위해 제시했는지를 먼저 묻고, 가능한 한 다른 자료로 교차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기술적 인

증(위터마크 등)이 보완책이 될 수는 있지만 가장 강력한 방어선은 결국 입체적으로 보는 개인의 통찰이다. 더 근본적인 질문도 남는다. 나는 왜 진짜보다 가짜를 더 원하게 느끼는가?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는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옹』에서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가상, 즉 하이퍼리얼리티를 경고했다. 가짜가 더 매끈하고 더 만족스러운 세계에서 내가 가까이 그 안에 머물고자 한다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능력은 빠르게 무력화될 것이다.

짧은 음성과 사진만으로도 특정 인물을 닮은 목소리와 영상이 만들어지고, 아예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 그럴듯한 증언을 하기도 한다. 고인의 기록을 학습해 대화나 게시물 생성하는 이른바 그리프봇(griefbot) 같은 시도도 거론된다. 보정과 조작의 구분 정도가 아니라 진짜와 가짜의 구분, 나아가 존재의 의미까지 혼란스러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루이스 캐럴의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서 붉은 여왕은 "제자리에서 있고 싶으면 죽어라 뛰어와야 한다"고 말한다. 최근의 변화 속도는 붉은 여왕의 나라보다 더 빠른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맹목적인 속도도 아니라 멈추어 서는 용기다. 화면 속 매끄러운 환상에 취하기보다 투박하더라도 진실한 삶의 흔적을 긍정하는 내면의 선택이 보정과 조작의 경계에서 우리를 지켜줄 유일한 항아리인 것 같다.

社說

목포 해경정비창 지역사회와 결속으로 조속 안착하길

해양경찰정비창이 목포 시대의 막을 올렸다. 신항만 허사도에 위치한 해경정비창은 5천t급 함정을 상가(선박을 수중에서 육상으로 끌어올려 수리·도장·검사 등을 수행하는 과정)할 수 있는 플로팅도크와 슬립프리트, 안벽 등 최첨단 시설을 구비했다. 서남권 수리조선산업의 생태계가 완성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실제로 해경정비창은 올해 45척을 시작으로 2028년 이후부터는 100여 척의 함정을 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목포해안대 선박수리지원센터 등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장비 대여,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나아가 올해 산업부와 방위사업청 주도 함정 수리·정비(MRO)사업 공모에 참여해 지역기업의 진출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정비에 필요한 엔진 등 핵심 기자재 업체를 적극 유치한다.

전체 해경 함정 수리의 60%를 담당하며, 기존 부산정비창까지 관할하는 본원 역할을 수행한다. 자체 능력을 조개해 외부로 발주되는 물량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조선업의 다각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된다. 정비창 근로자 등 상주

인력 유입으로 인구 및 주택·상가 분양 증가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정비정을 작기에 수리할 뿐만 아니라 중국 여선의 불법 조업 단속과 각종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 안전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천 등 서해안 정비정은 부산까지 이동하지 않고 수리해 시간을 단축하고 유류비 절감이 가능하다. 전남지역은 전국 섬의 65%, 해안선의 45%, 수산물 생산량의 52%를 차지한다. 여기에 해양경찰 정비정의 60% 정도가 서남해안 일부, 제주도 해역에 집중 배치돼 있다. 정부가 목포 허사도를 낙점하고 정비창 신설을 추진한 주요 배경이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3천326억원, 고용유발효과는 2천337명으로 나타났다.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부합하고 경제성과 사업성을 충족하고 있다. 전남 수리조선산업의 획기적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이 마련됐다. 7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드디어 출범했다. 해양경찰 정비창의 새 출발을 축하한다. 지역사회와 결속을 통해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바란다.

신입생 등록 100% 광주·전남 사립대 안도하지만

광주·전남 주요 사립대학의 2026학년도 신입생 등록률이 100%에 근접했다고 한다. 인원이 가장 많은 조선대는 99.9%인 4천335명이 등록을 마쳤다. 1천502명을 선발한 호남대는 100%를 기록했다. 광주대는 99.6%로 최근 8년 만에 가장 높았고, 광주여대는 99.9%, 전남 나주 동산대는 99.6%를 보였다.

해를 거듭할수록 지방대학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한 영향으로 일부는 등록률 공개를 꺼릴 정도다. 학과 폐쇄 등 생존을 위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과격 장학금 등 온갖 유인책을 시행했으나 흡사 불가항력이다. 이대로라면 폐교하는 곳이 나온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사람이 되고자 하는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가운데 지역 사립대가 떠나지 않기를 기원하는 채우게 된 요인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일단 대학들은 특성화 전략을 통한 노력이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을 내놨다. 시대 변화에 대응한 과감한 학사 개편, 인공지능(AI) 확산세에 따른 맞춤형 과정 강화, 기업체와 연계한 미래 인재 양성 지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사업이 주요했던 것으로 평가했다.

게다가 2007년 황금돼지의 해 출생자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시기로 학령인구가 급증하는 호재도 작용했다.

지금 입시도 마찬가지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인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추가합격을 통해 비수도권에서의 연세 도미노 이탈이 이뤄지고 미등록 사태가 속출하곤 한다. 운영비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만큼 재정난을 더 부추긴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학 모든 구성원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그리고 신입생 등록률이 수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역시 안도할 수 없다. 한숨 돌렸다고 해도 반수나 편입 등으로 얼마든 유출될 수 있어서다. 지방에서 진학하고 일자리를 구해 정착하려는 청년들은 눈에 띄게 늘지 않고 있다.

정원 미달로 비상이 걸렸던 예년과 비교하면 천만다행이다. 올해의 의미는 결과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 벚꽃피는 순서대로 남쪽부터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말은 기우에 그쳐야 한다. 지역의 미래 첨단산업과 연결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늦추지 않는 것이다.

문화난장



최 래 오
들꽃작은도서관장

우리는 평생 배우며 산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배움은 교과서와 시험을 거치며 차곡차곡 쌓인다. 지식은 머릿속에 정리되고 개념은 언어로 설명된다.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닫는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그리고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실천하는 것은 아니며, 이해했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학교에서 배운 윤리와 도덕, 책에서 감동 받은 문장, 존경하는 인물을 마음속 스승으로 삼으며 품었던 다짐은 소중하다. 하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한 단계를 더 건너야 한다. 몸으로 통과하는 과정이다. 직접 겪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경험 속에서만 배움은 비로소 힘을 얻는다.

정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정직을 선택하는 일은 다르다. 건강이 자산이라는 말을 이해하는 것과,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는 일은 다르다. 머리의 결심은 빠르지만 쉽게 식고, 몸의 실천은 더디지만 오래 남는다. 위급한 상황에서 빠르고 바르게

몸으로 배우는 즐거움

대처하는 사람들 보면.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고 몸으로 배운 사람이다. 몸으로 익힌 공부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몸의 공부는 실패를 동반한다. 자전거를 배우는 것을 생각해보자. 자전거 안장에 앉아 중심을 잡고 페달을 밟으면 된다. 단순하다. 이론으로 자전거를 탄 사람이 있는가? 넘어지지 않고 배운 사람이 있었는가? 수 없이 넘어지며 다치면서 어느 순간 몸으로 느끼는 균형감이 있다. 그 감각이 몸으로 익혀져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다. 오랫동안 자전거를 타지 않았어도 어느 날 다시 타도 그 느낌은 몸으로 배운 것이기에 다시 탈 수 있다. 수영도 그렇다. 아무리 팔과 다리를 빠르게 움직여도 몸은 가라 앉는다. 물을 먹으며 배우다가 어느 순간 몸이 뜨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을 느끼고 몸으로 익히면 잊혀지지 않는 수영이 된다.

몸으로 배운다는 것은 실패 속에서 아픔 속에서 가슴으로 느끼고 몸으로 익히는 것이다. 넘어지면서 균형을 배우고, 관계의 갈등을 겪어 본 뒤에야 배려의 깊이를 알게 된다. 한 번의 실수는 부끄러울 수 있지만, 반복된 성찰은 태도를 바꾼다. 이 과정에서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은 습관이 되며, 습관은 인격을 만든다. 그렇게 형성된 가치관은 외부의 평가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 이미 몸에 새겨진 삶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면 배움의 방식은 더욱 단순해진다. 더 많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실천

하느냐가 중요해진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사람을 어떤 눈빛으로 대하는지,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곧 공부의 결과다. 성적표 대신 삶의 태도가 남는다.

우리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지식을 접한다. 그러나 정보가 곧 지혜는 아니다. 지혜는 실패하면서 경험으로 몸으로 배운 사람에게서 나온다. 작은 실패를 꾸준 히 이어가는 일, 매일의 운동을 지키는 일, 익숙해진 바른 매너를 쌓아가면서 만들어진다. 몸으로 보여주는 단순한 반복이 한 사람의 철학을 만든다.

집 근처 드림강변에 파크골프장이 생겨서 운동삼아 채를 들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공은 마음대로 굴러주지 않았다. 짧은 거리에서도 방향은 힘들었고, 힘조절은 늘 과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들이 오히려 나를 자극했다. 원하는 방향으로 적당한 거리에 멈추고 킥홀로 들어가는 새로운 몸공부가 시작됐다. 나는 그런 몸공부가 좋다. 몸공부는 몸으로 익히기 위해서 하는 반복된 공부이다. 나이 들어가니 책상에서 하는 공부보다 몸으로 익히는 공부가 재미있다. 새로운 장난감으로 모처럼 찾은 몸공부가 있어서 즐거운 날들이 될 것 같다.

배움의 마지막 단계는 생각이 아니라 실천이다. 오늘 무엇을 알았는가보다 무엇을 행했는가 더 중요하다. 몸으로 익힌 공부는 요란하지 않지만 단단하다. 그 단단함이 쌓여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배운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독자투고

최근 연이어 보도되는 영아 사망 사고와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고, 재학대 우려가 있을 경우아동을 가정에서 즉시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를 시행하는 등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해 왔다. 경찰 역시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검거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의 세심한 관찰과 용기 있는 신고가 없으면 발견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를 놓

아이들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는 관심·신고

치지 말아야 한다.

먼저 첫째 신체적 징후는 거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나 시기가 다른 다발성 멍이다. 둘째 행동적 징후는 보호자와 함께 있을 때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공격적인 행동, 특정 성인에 대한 극심한 공포이다. 셋째 방임의 흔적은 계절에 맞지 않는 청결하지 못한 의복, 잦은 결석이나 장기간 방치이다.

"내 자식이니 알아서 하겠지", "남의 집가정사에 참견하는 것 아닐까" 라는 망설임은 학대의 골을 깊게만들 뿐이다. 아동학대 신고는 단순한 참견이 아니라, 한 생명을 구하는 가장 소중한 용기이다. 설령 학대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고의가 없다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아이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절대적 보호 대상이다. 법과 제도가 그릇이라면, 그 그릇을 채우는 것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따뜻한 관심이다. 112신고 버튼을 누르는 짧은 순간이 한 아이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 경찰도 아이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로 뛰며 끝까지 지켜내겠다.

(최관중·여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과)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카시 광장

엄마 꽃

문병선

엄마
꽃에 불 켜졌다
우와 정말이네
엄마엄마 많이 예쁘지
난 네가 더 예뻐



/광주다카시인협회 제공

*시작 노트
세상은... 꽃밭/ 우리는 모두가 꽃이다/ 나의 가슴엔 당신이/ 당신 가슴엔 내가

나는 어떤 향기, 어떤 모양의 꽃일까?
사랑하는 아이의 가슴엔 엄마가 꽃으로/ 엄마의 가슴엔 사랑하는 아이가/ 시들지 않는 향기나는 꽃/ 영원한 꽃으로 피어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내선 (062)650-2022

Table with 4 columns: Department (편집부,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Phone Number, and Fax Number.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에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